

중소기업청

일러스트라로 웹 사이트 구축

한국전산원 · 중소기업청 · 다우 기술 · 일러스트라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청.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전담 기관은 한국전산원, 직접적인 개발 사업자는 다우기술이다.

다우기술이 사업 개발자로 선택된 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번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에게 인포믹스 일러스트라로 브라우저내에서 코딩하는 샘플을 보여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다우기술 소프트웨어 사업본부 기술지원 팀장 최종민 대리는 4개월 동안 214개 중소기업에 대한 약 5천여 페이지 분량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회상하면서, “짧은 시간내에 우수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개발이 쉽고, 수치 정보 뿐만 아니라 복잡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멀티미디어 DBMS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러스트라가 국외에서는 객체지향성과 관계형 DB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DB 시스템을 구현하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포믹스 일러스트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외국 시장의 평가가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데이터블레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일러스트라 ORDBMS 서버는 웹 데이터블레이드, 텍스트 블레이드, 일러스트라 서버로 구성돼 있다. 최종민 대리는 일러스트라의 HTML안에서 SQL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내장(embedding) 기능 즉, 웹 데이터블레이드라는 모듈 덕분에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텍스트 블레이드는 검색 엔진이 검색하지 못하는 DB 내에 있는 데이터를 조건식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특히 특정 스키마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기능도 함께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관의 웹/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초기화 면에는 한국적 이미지를 잘 살리고 수익을 담는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복주머니가 등장한다.

영어와 국어 버전이 제공되는 이 웹 서비스의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아래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청은 생산성 도구로서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 자본과 홍보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인터넷 웹 서비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자사 제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 사업을 구상했다.

홈페이지는 각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게시판, 방명록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빌더 활용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의 입맛을 골고루 맞춰야 했기 때문에 메인 메뉴가 3번이나 변경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각 메뉴에 들어가보면 홈페이지 검색, 산업별 검색, 지역별 검색, 업체명별 검색, 업체 개별 홈페이지 등을 연차적으로 링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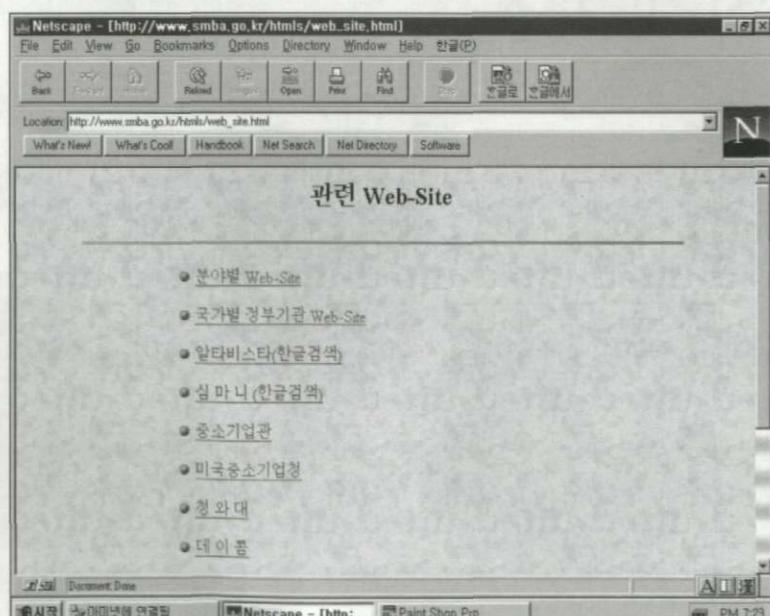
또, 메인 메뉴 화면 왼쪽에 있는 인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VRML로 구현된 각종 이벤트 정보로 곧바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T1급으로 연결된 선진 7개국의 산업정보 교환장인 G7 프로젝트와 직

접 링크돼 세계 시장으로 입성할 수도 있다.

214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이를 연동시키려면 업체당 20여 페이지, 총 5천 여 페이지의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마술을 발휘한 것은 인포믹스의 웹 홈페이지 구축 방법론인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빌더(Application Page Builder)였다고 한다.

최종민 대리는 프로젝트 계약 인원은 총 책임자, 프로듀서, 컨설턴트, 멀티미디어 데이터 테크니션,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프로그래머(HTML/Author), DB 디자이너, DB 프로그래머 등 총 20여명이지만 30~40명이 달라붙어야 할만큼 큰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갈 이 사이트의 효과는 내년부터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업체들에게 URL이 부여되기 때문에 업체의 국내외 홍보는 물론 제품 구매에 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우기술은 앞으로 2천년까지 이 서비스의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전자상거래 접속 서비스 프로젝트를 병행한다는 향후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http://www.smipc.or.kr/open.htm>이다.